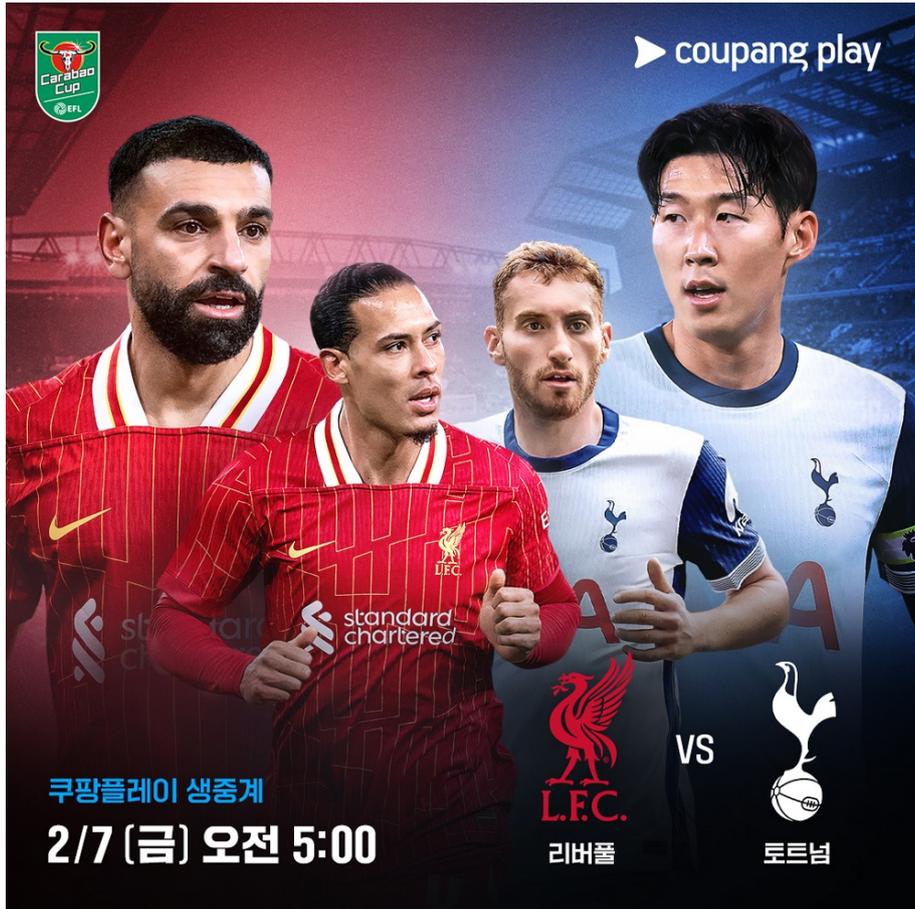


##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카라바오컵 4강 2차전 및 FA컵 4라운드 연속 생중계!

2025. 2. 4.



쿠팡플레이가 손흥민이 출전하는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를 비롯, 카라바오컵 준결승과 FA컵 4라운드를 생중계한다

- 2월 6일부터 5일간 잉글랜드 축구 양대 토너먼트 카라바오컵 준결승 및 FA컵 4라운드 중계
- 카라바오컵 '뉴캐슬 vs 아스날', '리버풀 vs 토트넘' 각각 6일(목), 7일(금) 오전 5시 생중계
- 손흥민이 클럽에서 거두는 첫 우승 기대 1차전 승리한 토트넘, 무승부만 해도 결승 진출
- 토요일부터 FA컵 4라운드(32강)까지 잉글랜드 축구 양대 토너먼트 모두 쿠팡플레이에서
- 9일(일)~10일(월) 이틀간 손흥민·황희찬·배준호·백승호·이명재 코리안리거 5명 출격 대기

2025. 02. 04. - 쿠팡플레이가 2월 6일(목)부터 10일(월)까지 5일간 유럽 축구 양대 토너먼트 주요 10경기를 생중계하며 2월 첫 주를 뜨거운 감동으로 채운다.

쿠팡플레이는 오는 6일(목)부터 10일(월)까지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과 FA컵 4라운드(32강)를 생중계한다. 잉글랜드 모든 프로 리그가 실력을 겨루는 리그컵 '카라바오컵'과, 아마추어 팀부터 최상위 리그까지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FA컵'은 잉글랜드 축구를 대표하는 양대 토너먼트다.

카라바오컵 4강은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되어, 이번 2차전에서 결승 대진이 최종 결정된다. ▲6일(목) 한국시간 오전 5시 올 시즌 리그 2위 아스날과 돌풍의 뉴캐슬이 대결을 펼치고 ▲7일(금) 오전 5시 캡틴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리그 1위이자 카라바오컵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에 맞선다. 지난달 열린 1차전에서는 뉴캐슬과 토트넘이 각각 아스날과 리버풀을 꺾는 반전을 연출하며 대회의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번 4강전은 손흥민이 클럽에서 거두는 첫 우승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다. 토트넘에서 10년째 활약하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올랐던 손흥민이지만, 국가대표가 아닌 소속팀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다.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대기록을 달성한 손흥민이 이번 카라바오컵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모이고 있으며, 토트넘은 2차전에서 무승부만 해도 결승에 진출한다.

중계에 나서는 임형철 해설위원은 “토트넘이 1차전 승리로 리드를 잡았지만 리버풀의 홈 구장인 안필드에서는 14경기 무승으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 왔기에 승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라며, “리버풀 상대로 4시즌 연속 득점 중인 손흥민이 스스로 힘으로 결승행 티켓을 따낼 수 있을 지 기대된다”라고 관전 포인트를 짚었다.

**coupang play**  
**FA컵 4R 중계 일정**

<b>2월 8일</b> (토요일)	오전 5:00		맨유 vs 레스터	<b>2월 9일</b> (일요일)	오전 2:45		버밍엄 vs 뉴캐슬
	오후 9:15		레이턴 vs 맨시티		오전 5:00		브라이튼 vs 첼시
	배준호 출전 예상 오후 11:50		스토크 vs 카디프		황정찬 출전 예상 오후 9:30		블랙번 vs 울버햄튼
	오후 11:50		에버턴 vs 본머스		오후 11:50		프리머스 vs 리버풀
				<b>2월 10일</b> (월요일)	손흥민 출전 예상 오전 2:35		아스톤 빌라 vs 토트넘

쿠팡플레이가 FA컵 4라운드(32강)의 코리안리거 출전 경기와 빅클럽들의 주요 경기를 생중계한다

카라바오컵에 이어 ▲8일(토)부터는 잉글랜드 최고 권위의 FA컵 4라운드가 사흘간 펼쳐진다. 32강에 해당하는 이번 4라운드에는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튼), 배준호(스토크), 백승호와 깜짝 입단 소식을 전한 이명재(버밍엄)까지 코리안리거 5명의 출전 가능성이 열려 있어, 3라운드에 이어 또 한 번의 ‘코리안 워크’가 예상된다. 맨유 맨시티 리버풀 등 빅클럽의 경기도 예정됐다.

특히, 토트넘과 뉴캐슬은 카라바오컵 4강전 이후 3일만에 FA컵에 나서는 대장정을 치른다. ▲9일(일) 오전 2시 45분엔 뉴캐슬이 3부 리그 1위 버밍엄의 홈을 찾는다. 오늘(4일) 버밍엄 입단을 공식 발표한 국가대표 수비수 이명재가 팀의 에이스 백승호와 잉글랜드에서 나란히 뛰는 첫 경기가 될 수 있다. 토트넘은 ▲10일(월) 오전 2시 35분에 아스톤 빌라와 맞붙는다. 2일(일) 브렌트포드전에서 리그 8경기만에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킨 토트넘이 바쁜 일정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승까지 단 두 경기를 남긴 카라바오컵과, 박진감을 더해가는 FA컵의 모든 순간은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